

## 발해, 후기신라시기 철학에서 세계에 대한 견해

로 학 희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오랜 력사에 걸쳐 발전하여왔다. 그것은 인간이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인간자신의 운명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는것과 관련된다.

인간이 세계에 대하여 알고 하는것은 자기 운명개척의 길을 알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것만큼 인간은 세계를 인식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세계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운동변화의 합법칙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으며 그에 대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세계에 대한 견해는 비록 미숙하고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고대시기부터 제기되어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었으며 발해, 후기신라시기에 와서 새로운 특징을 띠고 제기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발해는 고구려유민들에 의하여 옛 고구려땅에 세워진 강력한 주권국가로서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발전시켰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북방 여러 나라들의 거듭되는 침입을 막고 나라와 겨레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김정일전집》 제2권 163~164페이지)

발해, 후기신라시기 철학에서 나타난 주요특징은 불교철학이 발전한것이다. 그것은 당시 불교철학이 세계적인 사조로서 아시아에 널리 퍼져있은것과 함께 당시 발해와 후기신라의 봉건통치배들이 불교를 지배적인 사상으로 리용하고있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발해는 고왕(발해의 창건자 대조영)원년에 사신을 외국에 보내여 불교를 가져다가 퍼뜨렸다. 후에 불교가 성행됨에 따라 발해에는 많은 절간과 불탑들이 세워졌다.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룡천부(지금의 동경성)의 한 곳에만도 10여개소의 절간터가 발굴되었으며 그밖에 연해주지방 등에서도 수많은 발해의 절간터들이 발굴되었다. 절간터들에서는 금이나 동 그리고 돌과 흙 등으로 만든 여러가지 형태의 부처조각상들이 발굴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발해에서 불교가 적지 않게 퍼져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불교가 퍼짐에 따라 불교철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발해사람 법정은 성실론을 연구하여 그 《심오한 리치》를 사람들에게 강의하였다.(《송고승전》 6권, 석법정참고)성실론철학은 본래 소승불교철학의 한 류파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기부터 발전하여왔다.

법정은 주로 이 성실론사상을 계승하였다.

성실론은 세계에 대하여 2중적으로 연구할것을 주장하였다. 즉 성실론은 선행시기 구사론학파의 모든것은 실재한다는 주장을 반대하면서 세계를 2중적인 견지에서 연구할 때에만 옳은 결론에 도달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실론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속세사람들의 견지에서 보면 세계의 사물현상들은 흙, 물, 불, 바람의 4가지 큰 요소로 구성되어있고 실재하는것같지만 불교적인 견지에서 보

면 그것은 다 가명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서로 차별이 없고 다만 그 이름을 빌어서 놓고 볼 때 즉 개념상에서만 차별적인 여러가지 현상이 있게 된다는것이다. 실례로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은 흙, 물, 불, 바람의 4대원소가 구성된것에 대한 명칭으로서 원래 사람이라는 독자적인 실체는 없고 다만 가명상(즉 개념상)에서만 사람이란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여기로부터 그들은 사물현상들은 다 공이며 모든것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끄집어내었다.

성실론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객관적인 물질세계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것을 개념적으로만 인정하려는 관념론적립장인것이다.

성실론자들은 사람의 감각기관이 인식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인식을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은 의식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인식의 객관적 측면을 무시하고 주관적측면만을 절대화하는 관념론적인식론이다.

성실론자들은 세상에는 고정불변하게 존재하는것이란 없다고 하면서 모든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 변화하여간다고 하였다.

성실론자들은 이 사상을 종교적목적에 리용하였다.

이들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극락세계에로 가기 위하여서는 자기와 객관세계를 고정불변하고 영원한 존재로 볼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허무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독자적인 실체를 인정하고 물질세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때문에 그것을 취하여 자기의 물욕을 충족시키려는 욕심이 생긴다. 그러므로 모든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관점에 서게 되면 물욕도 없어지고 사람도 부처로 될수 있다는것이다.

성실론자들의 이러한 견해는 본질에 있어서 자기들의 종교윤리적인 금욕주의를 합리화하려는것이였다.

발해사람 무명은 룡종, 선종 등 여러가지 불교교리를 체득하고 당시 불교학계에서 박사가로 알려져있었다.

무명이 연구한 룡종불교는 불교의 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있는 불교의 한 교파로서 당시 지배계급들이 불교의 종교적의식과 신앙방법들을 규제하는데 복무하였다.

무명이 정통하였다는 선종불교 역시 불교의 한 교파로서 부처에 대한 신앙은 마음을 잘 닦는데 있다고 하면서 현실세계와는 멀리 떨어져서 선종 즉 명상의 방법으로 불교를 믿을것을 주장하였다.

무명이 주장한 이 룡종불교와 선종불교는 모두 그 종교적수양방법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그것들은 다같이 사람들의 자주적인 의식의 발전과 창조적활동을 말살하고 사람들을 봉건지배계급에게 순종하는 노예로 되게 하려는데 그 반동적목적이 있었다.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다음 대동강이남지역을 차지한 후기신라의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중앙집권적인 봉건통치체제를 강화하고 첨예화되어가는 계급적모순과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불교철학을 적극 발전시켰다.

후기신라에서 대표적인 불교철학조류로서는 원효의 해동종철학과 의상의 화엄종철학, 대현의 유식종철학 그리고 선종철학 등이다.

원효(617—686)는 7세기에 해동종(조선의 불교학파라는 뜻)이라는 새로운 불교철학 학파를 창시한 대불교철학자이다. 그는 원래 경상도 연산군에서 지방관리의 아들로 출생

하여 어릴 때 유교교육과 화랑교육을 받다가 30살을 전후한 때부터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불교를 믿는것은 《세계가 오직 일심》이라는것을 깨닫는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시 불종불교에서 설교하는 부처에 대한 우상숭배나 계를 대담하게 부정하고 방랑생활을 일삼았다. 특히 그는 요석공주와 결혼하여 설총을 낳은 후부터는 자기를 천한 선비로 자처하고 불교경전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그는 평소에 많은 저서들을 써내었는데 그가운데서 《대승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 《10문화쟁론》, 《관비량론》 같은것은 그 내용이 심오하여 국내외적으로 높이 평가되고있었다.

원효는 선행시기 국내외적으로 불교철학의 2대조류를 이루고있었던 중관파(또는 삼론종)와 유식파(또는 법상종)의 견해를 비판하고 이 두 학파의 학설들은 논리적으로 모순될뿐아니라 세계를 통일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해설할수 없다고 하면서 세계는 오직 일심이라는 자기의 독자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원효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것이 일심의 운동이며 일심의 발현이고 일심의 자기 발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자연이나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세계에는 그 어떤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정신적실체인 일심이 존재하는바 여기로부터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현상들이 파생되어나온다는것이다. 그는 《대승기신론소》 서문에서 일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하면서 일심이란 눈으로 볼수도 없고 말로 그 모양을 표현할수 없으나 그것은 무한히 크면서도 아주 작은 곳에도 침투되어있고 또 작으냐 하면 우주공간에 가득차있으면서 만물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이것은 객관관념론적견해이다.

원효는 일심을 진여심과 생멸심의 2개 모순적측면의 통일체로 보면서 이 두 모순된 측면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일심은 끊임없이 운동변화하고 발전한다고 이해하였다.

그는 일심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3개 발전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일심발전의 첫 단계는 자연이나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단계로서 이때의 일심은 아무런 오염도 받지 않고 아주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순수 추상적인것으로 존재하며 발전하는 단계이다.

일심발전의 둘째 단계는 오염된 물질세계에로 진화하여 발전하는 단계이다. 일심의 원래 상태는 본래 순수하고 발생과 소멸현상이 없으나 여기에 순수하지 못한것이 작용하게 되면 발생과 소멸운동이 일어나고 여기로부터 물질적인 오염세계가 출현하여 일심은 자기 발전의 제2단계에로 넘어간다는것이다.

일심발전의 세번째 단계는 자기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단계이다. 물질적인 현상세계에로 전화되였던 일심은 다시 현상들의 배후에 보존되어있던 진여의 작용에 의하여 오염현상을 가시고 순환과정을 거쳐 자기자신으로 돌아가 발전과정을 끝마친다는것이다. (《대승기신론소》 상권)

이상과 같이 원효는 종래 불교관념론의 여러 학파들의 체계와는 달리 일심을 기본으로 하는 독자적인 철학체계를 내놓았다.

원효는 세계를 운동과정으로 보았으며 모든 운동의 기초에는 그 어떤 신비적이며 절대적인 정신적실체인 일심이 놓여있다고 보았다.

이리하여 그는 절대적인 일심의 운동발전을 떠나서는 모든것을 론할수 없으며 세계도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외곡이며 객관세계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것이

였다.

의상(625-702)은 29살때 불학연구에 뜻을 두고 황복사에 들어가서 불교공부를 하였다. 그 후에 부석사와 해인사에 있으면서 화엄종불교철학을 연구하였다. 그가 쓴 책으로는 《일승법계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전해지고있다.

의상의 철학에서 이론적기초를 이루고있는것은 법계론 즉 세계에 대한 견해이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지난 시기 소승불교철학에서는 세계를 론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차별적인 현상세계에 대하여서만 말하였고 대승불교철학의 삼론종이나 유식종들은 주로 세계의 본체 즉 우주만물의 근저에 일관되어있는 본질적측면을 론하는데 그치였다.

의상은 원효의 철학에서는 본체와 현상을 각각 독립적인것으로서가 아니라 통일적인 견지에서 봄으로써 합리적인 견해를 내놓았으나 현상세계의 개별적인 여러 현상들간의 호상관계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사무애설 즉 사물과 사물들간에는 서로 의존하고 서로 용납하여 꺼리낌없이 융합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말하기를 《세계의 본체는 완전하여 특정한 자기의 체가 없으며 제 현상의 움직임도 없어 모든것을 초월한다. 지혜나 지식으로서도 증명할바가 못된다. 참다운 본체는 매우 깊고 극히 미묘하여 일체의 인연에 따라 현상을 발생시키는것이다. 하나가운데 일체가 있고 많은 가운데 하나가 있다. 하나는 곧 일체이며 많은것은 곧 하나이다. 하나의 작은 먼지가운데서도 세계가 포함되어있고 일체 먼지가운데서도 이와 같다. 끝없는 먼시간이 곧 일념이며 일념도 곧 끝없는 시간이다. 서로 의존하고 서로 침투되고 서로 꺼리낌없이 끝없는 현상을 발생시킨다.》(《화엄일승법계도》)라고 하였다.

여기서 의상은 세계의 본체인 리(법성)와 현상인 사(법)는 서로 타자를 용납하고 또 자기도 타자가운데 들어가기때문에 차별이 없을뿐아니라 개개의 사물현상들도 역시 그들간에 서로 불가분리적이며 서로 용납하여 호상 방해하지 않는 관계에 놓여있으면서 끝없이 계속된다고 하였다.

의상은 인정하기를 이미 본체와 현상이 하나의 몸통이(일체)라고 한다면 하나하나의 차별적인 현상들도 어느것이나 다 절대적인 본체가 아니면 안된다. 그리고 모든 현상이 다 절대적이라면 하나하나의 현상들은 서로 융통하고 서로 방해됨이 없어야 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차별적인 매개 현상들은 결국 그것이 본체이기때문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궁극에 가서 세계의 어떤 사물현상이나 그것이 모두 리와 관련되어있으며 모두 리의 체현이기때문에 무릇 존재하는 모든것은 다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의상은 세계를 본체세계(리법계)와 현상세계(사법계)로 나누어보면서 현실세계의 모든 사물현상들은 정신적실체인 리의 체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이로부터 의상은 본체적인 세계와 현상적인 세계, 본질과 현상은 《하나가운데 일체가 들어있으며 많은것가운데 하나가 들어있는 관계에 있으며 나아가서 하나는 곧 일체이며 일체는 곧 하나이다.》라는 결론을 내리였다. 이것은 하나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본질과 현상, 본체적인 세계와 현상적인 세계는 서로 밀접한 련관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의상이 주장하는것처럼 일은 곧 다이며 다는 곧 일이다 즉 본질은 곧 현상이고 현상은 곧 본질이라고 한다면 사물의 본질과 현상은 아무런 구별도 없는것으로 된다.

의상이 내놓은 이러한 견해는 결국 세계의 사물현상들의 차이와 대립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세계를 아무런 운동도 없는 정지상태로 보려는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궤변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총체적으로 의상의 화엄종철학은 사물현상들의 호상의존관계와 무차별성을 설교함으로써 후기신라불교사회의 신분적등급관계를 합리화하고 나아가서 모든것은 리의 체현이라고 설교함으로써 신라불교왕권의 절대적권위를 합리화하는데 복무하였다.

8세기에 이르러 후기신라에서는 대현의 유식종철학이 새로 발생하였다.

대현은 생존년대가 명확하지 않으나 8세기 왕경의 남산용장사에 있으면서 유식학과 인명학을 깊이 연구하여 당시 우리 나라와 중국의 불학자들속에 널리 알려져있었다.

그는 많은 책을 썼는데 현재 남아있는 《성유식론학기》(12권)와 《대승기신론내의략탐기》(1권)에는 그의 철학사상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있다. 대현은 앞선 원효나 의상의 철학적견해와는 달리 일식을 기본범주로 하여 자기의 철학체계를 세웠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세계는 오직 한정할수 없는 초자연적인 정신적실체인 일식의 산물이며 그 발현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일식이 자기 체내에 사물을 낳게 하는 생기인으로서 종자를 가지고있는바 그 종자에 의하여 마치 보리종자가 보리를 낳는것과도 같이 모든 사물현상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그는 일식을 인간의 주관적의식인 심과 구별하여 보면서 심이 일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의 철학이 객관관념론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대현의 철학에서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그의 인식론이다. 그는 신라불교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과 사회적인 고통은 다 사람들의 인식상착오에서 온다고 보면서 인식론문제연구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는 인간의 인식은 사람의 주관의식과 객관적물질대상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실례로 시각이 생기자면 눈이 있고 그에 대응하는 외계사물이 작용하면 된다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안식이라는 신비로운 의식이 지배할 때에만 비로소 시각이 생겨날수 있다는것이다. 그는 다른 모든 감각, 사고의 발생도 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았다. 이것은 결국 인식령역에서 객관적이며 물질적인 외계대상을 완전히 말살하여버리고 사소한 유물론적요소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의 철저한 관념론적립장을 드러내놓은것이다.

대현은 인식활동을 사람의 의식과 객관적인 현실세계를 떠난 그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일식의 자기 인식, 자기 변화과정으로 묘사하여놓음으로써 사람들의 정상적인 인식활동을 억제하여버리려고 하였다.

총체적으로 대현의 유식종철학은 후기신라불교통치배들의 계급적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 관념론이었다.

9세기에 이르러 후기신라에서는 종래의 불교철학조류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는 선종불교철학이 류포되었다.

선종불교철학의 형성과 발전은 당시 신라불교사회의 지배계급내부의 모순과 대립의 반영이었으며 또한 불교사체내부의 신구세력간의 투쟁을 반영한것이었다. 선종불교철학은 이러한 투쟁과정에 주로 지방세력의 하층 승려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여 출현한것이다.

선종불교철학의 대표적인 불교학자들로서는 신행, 도의, 무염, 범일, 대통, 개칭 등

이었다.

선종불교철학의 주요특징은 종래의 교종계렬의 불교철학들과는 달리 사람의 주관의 식인 심(마음)을 제1차적인것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불교사상을 전개하였다는데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만가지 현상은 모두 공허한것이다. 오직 하나의 심이 근본으로 될 뿐이다.》(《해동금석원》 1권 진감선자비명), 《심이 생기면 사물현상들이 생기고 심이 소멸되면 사물현상들도 소멸된다. 심이 곧 부처이다. 심밖에 또 무슨 다른것이 있겠는가?》(《조선금석총람》 상 고달사원종대사례진탐비)라고 하였다.

선종불교는 교종불교의 우상숭배, 불경연구, 번다한 종교의식들을 반대하면서 다만 개인들의 주관적인 신앙과 량심에 기초하여 심을 집중하고 깊이 생각하는 선정의 방법으로 진리를 깨닫고 부처가 될것을 주장하였다. 즉 모든것은 다 사람의 주관적의식인 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인정하였다. 이것은 주관관념론적인것이다.

인식론에서 선종불교철학은 인간의 인식능력의 제한성을 극단적으로 과장하면서 진리란 감각이나 경험 또는 리성에 의하여서도 파악할수 없으며 언어나 문자를 가지고서도 파악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원래 사람의 감각이나 경험 그리고 리성은 인식상의 오유를 초래할뿐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언어와 문자도 그것이 하나의 개념의 부호나 사고의 도구에 불과하기때문에 언제나 상대적이고 일면적이어서 진리를 밝힐수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설교하기를 인간은 사고를 하는 한 언제나 상대적인 세계에 머물러있어 미오법성 즉 미혹과 깨달음, 보통사람과 어진 사람의 차이를 극복할수 없으므로 모든 사고를 버리고 대립적인 세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기의 본래의 진면모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찾을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의 이와 같은 인식론은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인식작용을 부인하는 관념론적인식론이다. 이것은 그들이 선종불교철학의 종교적신앙의 합리성을 론증해보려고 들고나온 주장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그들은 인정하기를 부처와 사람은 결국 심을 중심으로 한미오(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것)의 두 측면이기때문에 문제는 이 둘의 대립을 없애고 자기 마음의 본성을 깨달으면 곧 부처로 될수 있다는것이다. 이로부터 선종불교철학은 심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교종의 여러가지 신앙방법을 반대하면서 좌선의 방법 즉 앉아서 명상에 잠기는 방법을 적극 주장하게 되었던것이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진보적인 철학사상들이 발생발전하면서 불교철학을 비롯한 관념론을 반대하는 투쟁도 벌어졌다.

후기신라의 진보적인 철학자는 최치원이다.

최치원(857-?)은 본래 유학자였으나 당시 선종불교철학의 관념론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과정에 일부 진보적인 철학사상을 내놓았다.

그는 12살때 상선을 타고 당나라에 가서 공부하다가 885년 28살때 귀국하였다. 귀국한 후 한림학사의 벼슬을 하다가 간신들의 간계로 하여 지방에 내려가서 대산군, 부성군 태수로 있다가 얼마후 벼슬을 단념하고 은퇴하여 후대교육과 학문연구에 전념하였다.

이 시기 최치원은 망해가는 봉건세력을 반대하고 왕건을 비롯한 신흥봉건세력을 지지하였다. 그가 쓴 책으로서는 《사륙집》(1권), 《계원필경》(20권), 《문집》(30권)이 있었다.

최치원은 선종불교철학의 주관관념론을 반대하고 자연계의 사물현상들은 다 태극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해와 달이 어찌 나온 곳이 없겠는가. 하늘과 땅은 태극에서 생긴다.》(《소화시평》 범해)라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태극은 그의 표현대로 하면 혼돈한 근원이며 원기가 분화되기 이전상태를 말하는것으로서 천지가 개벽되기 이전의 우주의 시원을 의미하는것이다.

최치원은 우주의 발생을 처음에 태극이라는 혼돈된 원시적상태로부터 하늘과 땅이 분화되어나오고 다음에 해와 달, 음과 양이 생기며 이것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세상만물이 발생된것이라고 리해하고있었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는 당시 선종불학자들이 일차적으로 내세우는 심에 대하여 《심은 사람의 몸을 주관하지만 그 심은 결국 사람의 몸에 의하여 조작된다.》(《고운집》 2권)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심을 주관관념론자들처럼 그 어떤 사물발생의 근원으로 본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적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후천적인것으로 보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최치원은 이 사상을 인식론에 도입하여 불교관념론자들의 선협적인식론을 부정하였다.

당시 선종불교나 유식종불교는 인식론에서 사람들의 주관의식의 작용을 무한정 확대하여 그것을 부처신의 의식에까지 끌고가면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인식능력을 가지는데 이것이 후천적인 경험지식에 의하여 오염되므로 불교를 믿어 잡념을 없애버려야만 옳은 인식에 도달할수 있다고 설교하였다.

최치원은 불교관념론자들의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다는 생지설을 반대하면서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후천적인 경험지식 즉 배워서 아는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옥도 같지 않으면 그릇을 이룰수 없는것과 같이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알수 없다. 사람이 비록 타고난 총명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보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 사물의 리치를 알수 없고 또한 설사 무식한 농부의 자식이라도 배우면 능히 무지에서 벗어날수 있다. 그는 대사, 성인이라고 하여 어찌 종자가 따로 있겠는가 하고 하면서 누구나 배우면 사물의 도리를 다 알수 있다고 하였다.(《고운집》 2권)

그의 이러한 견해는 당시 종교관념론이 지배하고있던 조건에서 인식론적으로 매우 주목되는 점이다.

최치원은 인식론에서 후천적인 경험지식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위하여서는 부지런히 학문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치원은 사람은 아무리 소질이 좋고 총명한 재질을 가지고있어도 그것은 가능성이며 그가 사물의 리치를 알기 위하여 학문에 힘쓰지 않는다면 진리를 파악할수 없고 그 총명한 재질을 나타낼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비록 한 지개의 흠은 많지 않지만 그것도 부지런히 쉬지 않고 쌓으면 나중에는 큰 산을 이룰수 있는것과 같이 사람이 무슨 일에서나 성공하자면 부지런히 실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발해, 후기신라시기 최치원을 비롯한 진보적인 학자들에 의하여 유물론적요소가

담긴 사상들이 제기되었지만 발해와 후기신라시기 봉건통치배들이 불교를 자기들의 통치에서 중요한 사상적수단으로 삼고있었던 사정과 관련하여 불교관념론철학이 기본주류로 되어 우리 나라 철학발전에 해독적영향을 주었다.

특히 객관적인 현실세계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부정함으로써 사람들의 창조적 활동을 저해하였으며 사람을 자연에 순응하는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고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 없게 하였다.

실마리어 발해, 성실론